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부처님 제자'

외국인 불자 포교법 변화 주목

한국불교 전통방식 고집 없이
각 국 고유문화 존중 · 향유
정토사, 삼광사, 명장사 등
부란절 효도법회 · 음악회 열어



사진설명) 외국인 불자들을 위한 한국불교 포교 방법이 다채로워지고 있다. 사진은 9월 16일 울산 정토사 법당에서 진행한 부란절 모습.

외국인 불자들을 위한 포교 방향이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문화 방식을 주입하거나 고집하는 것이 아닌, 그들만의 고유문화를 존중하고 각국의 불교문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늘고 있다.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지난 9월 16일 베트남 불자들을 위한 부란(Vu-lan)절 효도 법회를 개최했다.

부란절은 우란분절의 베트남식 표현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비롯해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날이다. 베트남은 매년 음력 7월 15일에 전통명절로 부란절을 기념하고 있다. 베트남인들은 이 날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장미를 달아 드리고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선 제사를 지낸다. 아울러 불살생계를 지키며 채식을 고수한다.

울산 지역 이주민과 노동자들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0여명의 베트남 어르신을 초대해 가슴에 꽃을 달아주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세족식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서로를 안아주며 늦은 부란절을 챙겼다. 행사 후에는 베트남 전통음식을 서로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지난 2007년 남구복지관장을 역임할 때 만난 다문화 가족들이 인연이 되어 외국인들을 위한 정기 법회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며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자국의 문화도 지키고 함께 향유하며 고향의 향수도 달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9월 23일 경내 식당서 베트남 문화 배우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베사모)이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개회사로 문을 열어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과 팜 흐우 찌 주한 베트남대사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베트남 음식에 관한 특강과 체험 코너가 마련됐다. 체험 코너에서는 베트남 대표 음식인 월남쌈과 국수를 시식하고 베트남 전통놀이에 불자들이 동참해 즐거움을 더했다.

천태종 청주 명장사(주지 유정)는 9월 10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음악회'를 개최했다.

명장사 관음합창단 창단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음악회는 문화 향유를 통해 다문화 가족 간의 이해를 높이고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새터민 충북연합회, 이승훈 청주시장, 정우택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음악회 1부는 명장사 관음합창단, BTN 불교남성중창단, 소나무 다문화 어린이중창단 등 여러 음악가들이 무대를 장식했으며 2부는 공양 순서로 진행했다.

울산 울주군 영축사(주지 각문)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잔치를 베풀었다. 영축사는 9월 16일 전국의 스리랑카 노동자 200여명을 초대했다. 행사는 스리랑카 가리가무외 냐나 티바 스님의 법문 후 전통 음악과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법회에서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티바 스님에게 가사 공양을 올리고 법회를 진행 할 수 있음을 기뻐했다. 하성미 기자

폭우로 남해 보리암 축대 붕괴

안전 위해 '시급한 보수 공사 요구'


9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무너진 보리암 경내 축대 모습.

태풍 16호 말라카스가 쏟은 폭우로 남해 보리암의 축대가 무너져 긴급 복구가 필요하다.

9월 17일 오전 11시~오후 2시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보리암 경내 극락전 아래 요사채 축대가 무너졌고 ,태조 이성계의 기도처로 알려진 '선은전'으로 가는 길이 사라졌다. 또한 요사채 지하 보일러실이 침수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남해군에는 시간당 최고 5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으며 하루 최고 강수량은 271.5mm를 기록했다.

보리암은 "19일 안전진단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건물을 사용하는 것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오래 방치 할 경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며 지진과 여러 태풍 소식이 있어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보수 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차량 접근이 어려워 공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하성미 기자

아픈 이웃 위해 힘차게 걸어보자

부산 생명나눔, 10월 9일 생명나눔 걷기 대회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이하 부산 생명나눔)는 10월 9일 오후 3시 부산시민공원(아트센터부지광장)서 '희망세상 만들기 제8회 생명나눔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부산시민에게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고 오랜 투병 생활로 지친 환우와 가족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또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환우 돕기 모금 활동을 전개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개막식은 본부장 원범 스님의 인사말로 문을 열어 휠체어 전달식, 응원단 공연(동아대 A.LES), 개막 선언으로 이어진다. 걷기 코스는 △아트센터부지광장 △문화의 숲길 △문화예술촌 △즐거움의 숲길 △자연체험놀이터 △시민마루 △반환점 △미로정원 △타임캡슐 △역사의 길 순으로 진행된다.

체험 부스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참가 가능하며 혈당혈압체크, 무료차시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환우와 가족, 본부 장기기증 및 후원회원, 자원봉사 관련 유관단체, 기업봉사단체를 비롯해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051)853-0429 하성미 기자

만오 스님, 인종·종교 초월한 인류애 실천

2억 굿네이버스에 기탁



부산 도원사 만오 스님은 9월 21일 법당에서 굿네이버스 보건의료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기부했다.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이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나눔을 실천했다.

만오 스님은 9월 21일 도원사 법당서 굿네이버스 보건의료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기부했다.

만오 스님은 "기독교 단체로 알려져 있는 굿네이버스에 기부를 결정한 이유는 온라인을 통해 접한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 시설 때문"이라며 "나눔에 있어 종교와 인종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오직 자비만이 답이다. 말라위 지역의 산모가 진통을 겪고 땅에서 아기를 낳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병원을 짓는데 도움을 줘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앞으로 탄자니아 신양가 지역 헬스센터와 말라위 참베, 친구오 지역 헬스 센터 건립 및 설비에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복지협, 저소득 청소년에 여성용품 지원

'락앤롤 닥터' 공동후원… 관련 기관 통해 전달


(사)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가 9월 12일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여성용 위생용품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회장 정여, 이하 부불협)가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 사업에 나섰다.

부불협은 9월 12일 양정청소년수련관서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여성용 위생용품을 전달했다. '락앤롤 닥터'가 공동 후원한 이번 위생용품은 부산불교계서 운영하는 가출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달된다.

부불협은 "이번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생활복지지원 사업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의 정서적 보호를 위해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여자청소년단기쉼터,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쉼터, 양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기관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전했다.

회장 정여 스님은 "부산불교복지협의회는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복지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어르신들의 신나는 재능 잔치

금정구노인복지관, 제3회 '금정愛산다' 개최

부산 금정구노인복지관(관장 조수경)이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제3회 '금정愛산다'를 10월 7일 오전 9시 50분 금정구노인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금정愛산다'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발표회로 12팀이 웰빙 댄스, 우리 춤 체조, 한국무용과 악기를 활용한 기타,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 수업 결과를 발표하는 장이다. 아울러 한글교실, 한자 · 한문 교실, 연필그림, 사진반 등 교육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출하고 복지관 각층 로비 및 복도 등에서 작품을 전시한다.

금정구노인복지관 측은 "본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행사 참여를 통해 어르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장으로 마련했다"며 "그 동안 배운 내용을 활용함으로써 서로의 교육 내용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관심을 독려했다. (051)792-7200~3)

하성미 기자

